



세계 물류 허브로 나아가기 위한 UAE의 노력

UAE, 미국 FDI에서 미래 국제도시로 선정

최근 FDI 인텔리전스의 미래국제도시 보고서(FDI Global Cities of the Future 2021/2022)에 따르면, 미래 국제도시로 선정된 25개 도시 중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각각 3위, 12위를 차지하면서 UAE의 향후 경제성장 전망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UAE 항구 자유무역지대 (Free Zone) 물류 네트워크 활발

UAE는 중소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전략적 형태의 특별경제지구(Specialized Economic Zones)가 있으며 항구 주변을 자유무역지대로 활용하여 해외 기업 및 현지 기업들의 물류 중심 지대로 거듭나고 있다. 대표적인 항구로는 아부다비의 자이드 항(Zayed Port), 칼리파 항(Khalifa Port), 두바이 제벨 알리 항(Jebel Ali Port), 샤르자 함리야 항(Hamriyah Port) 등이 있으며 이런 항구들은 국가기관인 두바이 해양도시 공사(Dubai Maritime City Authority), 두바이 항만공사(DP World), 아부다비 항만공사(Abu Dhabi Port Company, ADPC) 등이 전반적인 항구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 중 제벨 알리 항은 로이즈 리스트(Lloyd's List)가 선정한 세계 11대 항구로, 2020년 기준 물류량이 전년도 동기대비 0.2% 상승한 약 12억 톤(약 7천 1백만 TEU)을 기록했다. 현재 세계 최고 항구 인프라를 자랑하며 매주 80개 선박이 왕래 중이며 전 세계 150개 항구와 연결이 가능하다.



UAE 대표 항만 물류 중심지

아부다비 칼리파 항

자료: <https://gulfnews.com>



UAE 대표 항만 물류 중심지
두바이 제벨 알리 항

자료 <https://gulfnews.com>

세계 물류 여권(World Logistics Passport) 프로그램 출범

세계 물류 여권은 2020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공식 출범한 최초의 글로벌 화물 로열티 프로그램(Global Freight Loyalty Programme)으로, 무역 및 화물업 종사 기업들이 두바이를 통해 교역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 체인의 탄력성 강화는 물론 신흥시장이 직면한 물류 비효율, 비관세장벽 등 무역 장벽 해소를 돕고 UAE 주요 기관들이 협력해 신흥 시장 간 교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회원으로 가입되면 단계별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기업 거래 실적에 따라 회원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주요 혜택은 수출입과정 소요시간 절감, 국가별 최단 노선 제공, 세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통관시간 단축 등이다.

물류 운송 수단의 다각화, 항구-공항 연결 및 내륙 철도 건설

UAE는 항구 중심의 물류 허브를 계획함과 동시에 내륙으로의 이동을 위해 물류 인프라를 다각화하고 있다. 두바이 제2공항 알막툼 국제공항(AI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이 2022년 완공 예정이며 2030년에는 항구와 공항을 연결하

는 전용 도로도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에티하드 철도(Ethihad Rail)는 UAE를 거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만까지 이어지는 1,200km에 달하는 GCC국가 네트워크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주요 국가별 물류 시설 및 항만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역 알 구와이파트(Al Ghuwairat)에서 약 605km 이상 떨어진 푸자이라 항구(Fujairah Port)를 잇는 UAE 철도 네트워크의 2단계 통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로써 향후 UAE 북쪽지역인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 350만 톤의 공업 자재들을 아부다비 내륙으로 연간 500회 운반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료 <https://www.railwaygazette.com>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와 신기술 도입

UAE의 주요 물류 네트워크인 항만에서는 물동량 증대를 위해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두바이 기반 현지 항구 운영 기업이자 다국적 물류회사 DP World는 지난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구인 제벨 알리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3에 최신 운영체제(TOS)인 조디악(ZODIAC)을 도입했다.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컨테이너 위치 추적 및 통관 프로세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아부다비 칼리파 항구에서는 주변 칼리파 산업 단지(KIZAD) 지역에 백신 공급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 접종을 해주는 헬스케어센터를 함께 설립하여 의료약품 및 기기 물류의 허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항구를 통해 들어온 백신들은 UAE지역 및 전세계 지역에 배송 가능하며 무니티(mUnity) 및 막타(Maqa Gateway) 디지털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물류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시작된 스카이웨이(SkyWay) 프로젝트가 가까운 미래에 그 결실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인 포드(Pod)가 특수 설계된 고가 선로를 통해 이동하는 혁신적 교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샤르자 연구기술혁신단지(Sharjah Research, Technology and Innovation Park)에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해왔다. 현재 2km 시험 선로가 개통될 예정이며, 3년 안에 샤르자에서 코르파칸(Khorfakkan) 항구까지 이어지는 130km 하늘길로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물류 시스템 자동화 및 무인 운송 프로젝트

- ① 아부다비 막타 게이트웨이(maqa gateway) 항구 물류 관리 시스템
- ② 샤르자 연구 단지(SRTI Park)에 설치된 두바이 스카이웨이(SkyWay)

자료 <https://www.adports.ae>
<https://www.arabianbusiness.com>



Key Point

중동지역은 세계 물류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물류 확대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닦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주변국으로의 수출도 용이하여 향후 세계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현재에 직접 진출을 원하는 한국 물류 및 수출업체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입주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항만, 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와 함께 제벨 알리 항구와 같은 거대 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하면 외국인 투자 진출 시 지분 제한이 없으며 최대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항만뿐 아니라 본토 내에도 여러 유형의 자유무역지대가 산재하고 있고 조건과 혜택이 상이하므로 업무활동 방향에 맞춰 최적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정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